

# 올 전북형 건강증진학교 도내 47곳

### 전북자치도교육청, 학생 평생건강 기틀 마련 도모...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학생들의 평생건강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 전북형 건강증진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17개교, 중학교 16개교, 고등학교 14개교 등 총 47개교를 전북형 건강증진학교로 선정했다.

전북형 건강증진학교는 학교 스스로 학생들의 건강수준을 진단하고, 교육공동체가 협력해 건강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이다.

선정된 학교는 아동·청소년 주요 건강지표 분야인 △비만 예방 및 불균형 체형 예방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일상생활 건강 실천 △기타 학교 특색 건강실천 사업 등 4가지 분야 중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영하면 된다.

또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건강생활 실천 습관 형성을 위해 교육과정에 기반한 연중 지속적인 건강증진 활동, 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 학교 자체

성과분석 등을 추진한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사업 내용 및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해 교당 300만~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서기 문예건강과장은 "학생들이 건강한 미래인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스스로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실천하는 자기주도적 건강관리 역량이 필요하다"면서 "전북형 건강증진학교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도내 학생들의 건강지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난 19일 정다운학교인 완주 청명초등학교를 방문한 서거석 교육감이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다양성 존중 통합교육 지원 한층 더 강화할 것”

#### 서거석 교육감, '정다운학교' 완주 청명초 방문... 수어 배우기 등 장애공감교육 참여

서거석 교육감이 지난 19일 정다운학교인 완주 청명초등학교(교장 이윤숙)를 방문했다.

정다운학교는 일반학교에 다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교 적응력과 교육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통합교육 협력 모델학교다.

도내에서는 2018년 도입, 현재 7개 학교에서 운영 중이다.

청명초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정다운학교로 선정,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협력 속에 다양한 프로그램

을 운영 중이다.

전북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서 교육감은 이날 이 학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만든 장애공감벽화 등을 둘러본 후, 강당과 운동장에서 진행된 장애공감교육에도 참여했다.

서 교육감은 간단한 퀴즈를 통해 수어를 배우고, 기타와 함께하는 수어 노래 부르기, 운동장에서 바깥개비 놀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다름이 존중되는 통합교육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수영선수로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장애인 학생에게는 장애인의 날 모범학생 교육감 표창장을 직접 전달하고, 장애 공감 영상 촬영지에 학생들과 함께 출연하기도 했다.

서 교육감은 “장애와 비장애 구별 없이 차이를 존중하는 특별한 친구를 만드는 과정을 함께할 수 있어 흐뭇했다”면서 “모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통합교육에 대한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은성 기자



### 호원대 씨름부, 대한체육회장기 장사씨름대회서 개인전 동메달

호원대학교 씨름부가 제2회 대한체육회장기 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대학부 개인전 동메달을 획득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호원대 씨름부는 지난 16~17일 2일간 보성군 벌교스포츠킴터에서 열린 제2회 대한체육회장기 전국장사씨름대회에 참가, 대학부 개인전 청장급(-85kg) 체급에 박종운 선수가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은형준 감독(스포츠투드학과 교수)은 “박종운 선수는 4학년 고참으로 슐 선수수를 보이면서 후배들에 귀감을 보이며 팀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며 “동계훈련을 강도 높게 한 결과 2024년 대회에서 꾸준히 성적을 내는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 단위 학교 'IB 프로그램' 이해도 향상 교원 공감대 형성 통한 IB 교육 저변 확대

#### 전북자치도교육청, 도내 초·중·고 교직원 500여명 대상 특강 이해정 교육과 혁신연구소 소장, '왜 IB인가' 주제... 22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22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도내 초·중·고 희망 교직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왜 IB인가'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IB 프로그램에 대한 단위 학교의 이해도를 높이고, 교원의 공감대 형성과 인식 변화를 통해 IB 교육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교육과 혁신연구소'의 이해정 소장이 강사로 나서 '미래교육 패러다임: 왜 IB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펼친다.

이 소장은 IB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은 전 세계에서 운영하고 통용되는 기준임을 안내하고,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이제는 변화해야 할 때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집어넣는 교육 VS 생

각을 깨내는 교육 △기준 논술과 뭐가 다른가 △학력 저하되지 않나 △구족 교육? 엘리트교육? △사교육이 지금보다 폭발할까 △정성평가 채점이 공정한가 △교사 연수와 채점관 양성은 어떻게 등이다.

한편 이날 IB 특강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송출되며, 전북교육청은 7월 중 2차 IB 특강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실력과 바른 인성을 갖춘 미래인재로 키우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IB 교육을 추진한다”면서 “교사들에게 연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등 IB 교육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 전주대-국립군산대 창업지원단 전북형 창업패키지 지원 협약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은 지난 19일 하림미션홀에서 국립군산대학교 창업지원단과 유통 벤더사(씨에프리테일(주), 와우템글로벌, 크로스컨설팅)간 전북형 창업패키지 지원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약 기관들은 전북형 창업패키지 창업기업 지원 협업, 우수창업자 발굴 및 사업 연계 협조, 성장과 도약을 위한 교육 및 판로지원 프로그램 협력 운영, 창업 활성화를 위한 인적 교류 활성화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이날 협약식은 제1회 전북형 창업패키지 디지털 품평회와 함께 진행됐다.

제1회 전북형 창업패키지 디지털 품평회는 현직 대형 유통망 MD·벤더와 인플루언서 20명이 참석해 26개 기업과의 네트워킹, 품평, 상담이 이어졌다.

참가기업은 MD·벤더와의 상담 및 인플루언서 미팅을 통해 제품에 대한 피드백, 입점, 협업, 컨설팅이 진행됐으며, 온라인 디지털 부스를 통해서도 품평 및 소비자 피드백이 이뤄졌다.

창업지원단 오현성 센터장은 “전북형 창업패키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일회성 협업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도내 창업기업의 성장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국립군산대, 군산조선소와 조선해양 인력 양성 맞손

국립군산대학교 조선공학과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학생 취업 및 교육 협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서해안벨트를 이끌어 나갈 조선해양 우수인력을 적극 양성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국립군산대에 따르면, 17일 개최된 간담회에는 HD현대중공업 군산공장의 이원섭 상무, 군산공장부총장부 부사장, 경영지원 허원석 책임매니저, 정동훈 책임매니저가 참석하였고, 국립군산대학교에서는 이장호 총장, 최원성 부총장, 오정근 기획처장, 조선공학과 서대원 학과장, 정한구 교수, 문병영 교수가 참석했다.

이 회의는 군산조선소 작업재개로 전북의 조선해양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 기관이 협력하여 학생취업을 및 조선해양분야 글로벌 학생 핵심역량을 증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채용 요건과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과과정을 보다 실무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조선공학과 간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또한 산업체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 커리큘럼을 공동 개발하는 방안도 논의돼, 앞으로 학생들의 선택지가 더욱 확장 및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군산대학교 조선공학과는 전북특별자치도 유일의 조선해양고등교육 기관으로 산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하에 실질적이고 다양한 현장경험 학습과 역량강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교신=이재훈 기자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고등학교의 자매학교인 호주 시드니 버우드 걸스 하이스쿨 학생들이 전주한옥마을 내 위치한 전통성당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세계인으로서 자질 갖게 할 계기”

#### 전주대사대부고, 호주 자매학교 초청 국제교류수업 버우드 걸스 하이스쿨 학생, 전주대사대부고 방문 학교 투어·작공 친구와 함께 듣는 수업 등 참가 전주한옥마을 찾아 한복 등 한국 문화 체험 갖기도

전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자매학교인 호주 시드니 버우드 걸스 하이스쿨 학생 및 교사 40여 명이 지난 1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류수업 일환으로 전주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방문단은 이날 상용차 생산 시설인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견학한 후 전주대사대부고를 찾아 그동안 온라인수업만 만났던 친구들과 대면 교류를 이어갔다.

이에 전주대사대부고에서는 △학교 투어 △작공 친구와 함께 듣는 수업 △급식 체험 △양극 장기차량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마련, 한국 고등학생의 하루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후 전주대사대부고 작공 친구와 함께 전주한옥마을을 찾아 한복 체험, 전주비빔밥 시식 등을 하며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버우드 걸스 하이스쿨의 안기화

(Qeeha An) 교사는 “자매학교에서의 환대가 낮은 곳에서의 익숙함을 느낄 수 있게 했다”며 “학생들이 세계인으로서의 자질을 갖게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주대사대부고 김나운(2년) 학생은 “작년 시드니 방문 이후 작공 친구를 볼 수 없어 너무 아쉬웠는데, 전주에서 친구를 만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너무 행복했다”고 말했다.

전주대사대부고 유병선 교사는 “전북교육청의 국제교류수업 지원 사업이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사대부고는 2024년 전북교육청 국제교류수업학교로 학기 중에 버우드 걸스 하이스쿨과 온라인수업을 진행, 여류방학을 이용해 호주 현지 학교를 방문해 교류수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 “전북특별교육자치 구현 교육감 권한 강화해야”

#### 미래교육정책연구소, 콜로키움서 의견 제시

전북특별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계기 위해서는 교육감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래교육정책연구소는 지난 1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1층에서 2024년 제4회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콜로키움은 미래교육정책연구소에서 매월 발간하는 '전북교육정책연구 오 날'의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현장성 있는 교육정책을 심도있게 다루는 의견 공유의 장이다.

이날 콜로키움에서는 '전북특별교육자치 구현을 위한 도·교육청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연구'를 통해 최근 새롭게 시작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운영에 있어 교육감 권한 강화의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이에 따르면 현행 우리 법제가 교육의 지주성 및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교육자치를 실시

하고 있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 운영에 있어 교육감에게 적절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지방자치', '지방교육자치', '특별자치'가 추구하는 이념과 본질에 부합한다는 것. 특히 도지사와 대등한 교육감의 권한 마련을 위해 △교육감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당연직 위원 참여 △교육·학에 관한 사무 사전협의 의의와 △교육특례 교육감 제출권 신설 등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대해 현행 도지사 보고, 교육감 통보 방식을 개정해 교육·학에 사무에 대한 감사 결과는 도 교육감에게 보고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이날 제시된 의견들은 연구자료 형태로 책자와 메일링 서비스, 누리집 등을 통해 교육청 소속 모든 기관과 학교 현장에 배포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 우석대, 25일 'W-SKY 23' 개관식

#### 학·군 협력 추진 대표 모델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오는 25일 대학 본관 23층에서 'W-SKY 23' 개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W-SKY 23은 본관 23층에 복합문화공간(연면적 389.3㎡)을, 옥상에는 전망대(연면적 177.68㎡)로 구축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박노준 총장은 “학·군 협력 추진사업의 국내 대표 모델인 'W-SKY 23'은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어가기 위해 과감히 추진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 'W-SKY 23'이 원주와 전북특별자치도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완주군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